

원도심 되살리기 어떻게...순천시 상생토크 첫 대화

노관규 시장, 시민들 제안·의견·불만 등 생생한 현장 의견 청취 실버타운 조성·문화의 거리 브랜드화·특화 음식 개발 등 논의

순천시가 상생토크 1회차 대화를 갖고 원도심을 살리는 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지난 3일 남터광장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업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순천상생토크 1회차 대화에서 시민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순천상생토크 1회차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순천상생토크'는 기존 시민과의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 정책현안별, 계층별, 권역별로

진행하는 새로운 시민과의 대화방식이다. 해당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정방향 설명 및 시장의 답변 시간은 최소한으로 하고 현장 의견 청취 위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현안에 대한 제안, 건의, 불만까지 자유롭게 발언했다. 원도심상업연합회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함께, 임대료 인하운동 등 임대·임차인 상생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또 젊은 세대가 찾아올 수 있도록 원도심만의 스토리가 입혀진 개성이 강한 상권이 집약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기에 순천은 정주여건이 뛰어나므로 시니어스 타워 형식의 실버타운 조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문화의 거리 브랜드화, 순천의 특화된 음식, 차 없는 거리 만들기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100여분간 이어진 대화는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염원 및 동서부권 갈등을 조정하는 전남도의 의대유치 공모를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종료됐다.

이 자리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원도심을 변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만든 자리로 힘을 모아주시는 원도심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제안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토론하고,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원도심이 살아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2차 순천상생토크는 '신대지구 생활환경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8일 수요일 오후 2시 신대버스킹공영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 3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업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4 순천상생토크 1회차 대화에서 시민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고흥군 노인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이 1000원의 아침밥을 이용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어르신에 '1000원 아침밥' 제공

노인복지관 등서 급식

고흥군은 노인복지관에서 지난 3월부터 어르신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어르신 급식을 지원하는 곳은 21개 경로 식당과 노인복지관 2곳이다.

고흥군은 복권기금을 통해 7억4600만원 규모 어르신 급식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침 제공은 지난 3월25일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노인복지관 조식 제공은 전국에서 두 번째 시행되고 있다.

이달 현재 20명의 어르신이 1000원으로 조식을 먹고 있다.

21개 경로 식당은 60세 이상 홀몸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다.

김경수 고흥군 노인복지관장은 "고흥군에서도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고흥군 노인복지관도 지역 어르신이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시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

폐배터리 재활용 기관·기업 참여

광양시가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한다. 광양시는 지난 3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최중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 한동수 포스코퓨처엠 광양양극재 생산부장, 임지우 포스코HY클린메탈 대표, 마상복 SK에코플랜트 부사장, 김학범 ㈜광양이엔에스 대표, 고대권 ㈜에코 대표가 참석했다.

광양에 있는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양극재 생산 관련 기관·기업들이 협약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양시와 전남테크노파크,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국가 공모사업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행정적인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참여 기업은 폐배터리의 전처리·후처리,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양극재 생산 등 폐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유기적 협력을 약속했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이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이차전지 소재 산



광양시(시장 정인화·왼쪽 네 번째)가 전남테크노파크,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련 기업과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업의 거점으로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소재 전주기 공급망을 완성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체결은 친환경·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좋은 기회인 만큼 광양시가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선두 주자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차전지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

축' 사업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5종의 해체·분리·추출·분석 장비 구축을 할 예정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광양시·전남도와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생태계 조성 마련'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양만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 섬진강 인근 농가

'꿀수박' 출하 준비 한창

구례군은 섬진강 인근 농가에서 지역 특화작목인 '꿀수박' 출하 준비가 한창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구례군은 '구례 수박 품질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 농가 19ha를 대상으로 12만9000주의 수박 모종 구입비를 지원했다.

구례는 변성암 분포도가 넓은 지질학적 특성이 있다. 다른 지역보다 토양 속 게르마늄 함량이 5배 가량 높아 수박 재배 적합지로 인정받고 있다.

구례군은 조은꿀, 나이스꿀, 조생흑미 등을 수박 주력 품종으로 재배하고 있다. 구례 수박은 이달 중순부터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소비 동향에 맞는 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수박 재배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 수박 농가에서 이달 중순 출하 준비를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보성군 17일까지 '모바일 건강관리' 참여자 모집

보성군이 오는 17일까지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2024년 모바일 건강관리(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대상자는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19세 이상 65세 미만 주민 또는 보성군 소재 직장인이다.

검사 결과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항목 중 건강 위험 요인이 높은 50명을 우선순위로 등록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이면 참여할 수 없다.

사업은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보성군 보건소가 제공하는 활동량계(스마트 워치)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6개월간 스스로 건강정보를 기록하면 된다. 보건소는 개인별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건강 모니터링, 운동 지도, 영양 관리 상담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건강강진팀(061-850-5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광양향교 활용 다양한 문화 행사

'유교의 시간, 선비의 공간' 등

11일부터 7개월간 4개 행사

광양시가 광양향교(광양읍)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오는 11일부터 펼친다.

광양시는 문화재청 '2024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사·공간의 기억, 광양향교'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향교·서원의 문화유산과 배향 인물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 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사·공간의 기억, 광양향교'는 향교가 존재하는 사·공간에 들어가 과거와 현재를 이으며, 전통문화 재해석과 새로운 시각 접근으로 향교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도록 꾸려졌다.

이달 1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유교의 시간, 선비의 공간 ▲매천황현, 시패(詩牌)를 찾아라 ▲2024 회양문헌집 '기별(奇別)하다' ▲밤을 걷는 선비 등 4개 행사를 진행한다.

'유교의 시간, 선비의 공간' (5월11일-6월22일)에서는 총 6차례에 걸쳐 향교의 건축과 공간, 문양, 구조를 활용해 홍보 염서와 영상을 만든다. '매천황현, 시패(詩牌)를 찾아라'는 향교 곳곳에 적힌 한자를 타이포그래피 기법으로 재해석한 미

술 활동을 벌인다. 2024 회양문헌집 '기별(奇別)하다'는 광양의 회양문헌집 회양10경을 감독하고 2024 나만의 회양문헌집을 만드는 활동이다. '밤을 걷는 선비'는 향교의 제례 문화를 알고 일대의 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렬과 그림자극 공연을 진행한다.

'유교의 시간, 선비의 공간' 행사는 오는 9일까지 구글폼(forms.gle/pNzG5PsCjbdMm3t8)을 통해 신청자를 받는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생이며, 기수별 15명(총 3기수)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광양향교(070-4258-2425)로 문의하면 된다.

안영춘 광양향교 전교는 "광양향교의 존재와 가치가 생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향교에 대한 친근함과 역사적 의미를 알릴 좋은 기회"라며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의 인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박람회장에 '전남 1호 블루워케이션 센터'

일과 휴가 동시 즐길 수 있는 공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일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남 1호 블루워케이션 센터'가 문을 열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에서 '1호 전남도 블루워케이션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중기 여수시 부시장과 전남도·여수시 관계자, 사·도 의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블루 워케이션(Work+Vacation) 센터'는 섬과 해양, 산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여수 워케이션은 원격근무자에게 숙박시설과 공유 사무실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아쿠아리움과 요트 체험, 아르떼뮤지엄 관람 등을 즐길 수 있다.

전남도가 처음 문을 연 여수 블루워케이션 센터에서는 여수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전남 1호 블루워케이션 센터'.

이곳은 2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워케이션 참여 희망자는 서울경제진흥원 워케이션 누리집(worcation.sba.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11-12월 한 달간 워케이션 센터를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127명이 워케이션에 참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